126. 섬유제품 불량 상담 Q&A
- (33) 통기성 불량에 의한 색상 탈락 -

Q. 견제품의 어깨 부근 몸통 안감에 바탕색의 색상으로 보이는 붉은색 오염이 발생되었음. 땀에 의한 오염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원인은 무엇일까?

해설)

◦ 착용시 땀으로 견제품의 몸통 안쪽 옆구리나 등 부위에 바탕색이 우러나는 불량이 자주 있음. 그러나 땀에 의한 오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곳에 연하지만 색 우러남이 생기고 있는 것이 문제임. 지적한 몸통 안쪽에서 생기는 색 우러남을 자외선 하에서 관찰하면 땀에 의한 얼룩 흔적은 관찰되지 않음.

◦ 색 우러남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의 겉감에는 바탕색 위에 금박가공이 되어 있어서 착용중 몸에서 나온 습기는 밖으로 확산되어 가는데, 그곳에 금박가공으로 인해 습기의 흐름이 차단되고, 부분적으로 과습한 상태가 된 것임. 이로 인한 염료의 수분이동에 의한 색 우러남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.

◦ 특히 최근에 바탕색이 진한 의류인 경우에 염료의 몇 가지가 영향을 받아 노랗게 되어 그곳에 습기가 많이 닿으면 색 우러남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남.

◦ 이러한 사례에서는 소비자의 착용조건 하에서의 불량은 아니므로, 바탕색의 진함이나 가공법, 디자인 등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.